

후원자 간증문

기업택배 중심
동진특송
윤순오 회장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가난한 촌놈의 서울생활기

저는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이란 조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시절 버스나 열차, 전기불은 구경도 못했으며 책가방이나 운동화도 모른 채 처음으로 상경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서울로 유학을 온 셈입니다. 이른 새벽 서울역에 도착하여 서대문을 지나 가는데 순복음중앙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뭔지도 몰랐고 형님 이름이 순복이여서 교회를 형님택으로 착각할 정도로 촌놈이었습니다.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단칸방의 옆방에서는 경기중학교 등 3대 명문중학교를 목표로 9명이 그룹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저를 가엾게 여긴 과외선생님께서 무료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고 덕분에 그들과의 격차를 조금이나마 좁혀나갈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는 영광도 잠시 고향집은 아버지의 빚보증으로 결국 집 한 채만 남겨둔 채 전 재산을 잃게 되면서 고난과 시련이 시작되었고 결국 어머니도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기업택배의 선두주자로 우뚝서다

30년 전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보고 싶은 마음에 택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초창기 국내 택배시장이 허용되기 전이라서 여러 가지 법규나 규제와 싸워가면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신지식인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저는 세계상공인대회 청년실업가로 동참하면서 본격적인 사업가의 길로 접어들었고 현재까지 한 우물을 파면서 기업택배의 선두주자로 물류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기도로...

저는 95년에 명성교회에 등록하였지만 주일을 거의 지키지 못했고 교인으로서의 본분을 잃은 채 살아왔습니다. 아내의 거듭된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일관했고, 술과 세상을 즐기며 나태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확신도 없었고 논리적으로 파고들어갈수록 모순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결과물에 대해 하나님과 결부시키고 싶지 않았고 모두 내 의지와 열정, 내 노력과 내 능력에 의해서 일궈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 저를 불쌍히 여겨 버리지 않으시고 어머니를 통해 신앙의 길로 인도해주셨고 명성교회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천호동에서 광나루길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재단을 쌓으시고 낮이면 각종 빈병과 폐품을 수집하여 그 수입금으로 헌금을 하시고 일평생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헌신과 봉사로 눈물의 기도를 하신분이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이 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조금씩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안수집사의 임직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면서 저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갈급한 목마름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날마다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였고 4년 동안 찬양대장으로 봉사하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도 컸습니다.



방송선교의 뜻을 품다

요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씨채널방송의 방송선교 후원에 참여하여 섬김과 나눔의 기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 사역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놓여준 선교에 뜻을 품었던 저는 2011년부터 씨채널방송의 방송선교사 후원에 참여하며 방송을 통한 복음전파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일에 씨채널방송을 사용하여 주시고 씨채널방송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받고 성장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방송선교의 자리에 불러 사용하심을 감사드리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기회가 없는 많은 영혼들에게 씨채널방송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기를 기도합니다.

과외선생님의 도움으로 학업에 매진할 수 있었던 학창시절,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에 절약과 부지런함이 몸에 배고 홀로서기를 준비해야했던 청년기, 최고지휘관을 사택에서 모시면서 정신적, 육체적 무장을 새롭게 한 군 생활, 사업상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많은 분들과의 소통과 소중한 인연 등 지금 생각하면 주님께서 제 삶의 중요한 길목마다 저를 단련시키셨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를 인도해주셨습니다. 저는 분명 그리스도께서 제 삶의 주인이셨고 앞으로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모든 분께 함께하길 기도합니다.